

# 2009년도 선정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지원프로그램 최종보고서

구분	2009년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프로그램
연구과제명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火)’ 관련 어휘적 연어 표현 비교 연구
연구원	조은영(한국문화연구소/ 국어국문학 박사 1학기), 박민경(국어문화원/ 국어국문학 석사 수료), Siu Pui Sang(국어문화원/ 국어국문학 석사 2학기)

##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난 ‘화(火)’ 관련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s) 표현을 비교 연구하려는 것이다. 어휘적 연어는 자유 결합구문, 관용구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어를 이루는 두 개의 어휘 간의 통사·의미적 제약관계는 기존의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의미적 제약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는 선택이 되고, 특정 어휘는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어휘적 연어는 선택제약으로는 기술할 수 없는 어휘 간의 결합 제약을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어휘 제약<sup>1)</sup>이라 하며, 이는 어휘적 연어의 언어내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밥을 먹다’라는 표현은 선택 제약에 의한 동사의 명사 선택이므로 외국어 화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육을 먹다’같은 어휘 결합은 선택 제약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언어 자체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어휘 관계는 언어 내적 결합으로 한국어에서 이를 특별히 습득해야만 구사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어휘적 연어가 한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특수한 표현임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감정 표현을 정리하고 대조함으로써 두 나라말에서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여 인지구조화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하고,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중국어 표현과 대조되는 한국어 표현만의 변별적 특성을 통해 감정에 대한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쪽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기계 번역, 사전 편찬 등 다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자에 따라 ‘어휘 제약’이라는 용어 대신 Cruse(1990)가 제시한 ‘언어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송정근(2002), 임근석(2002)에서 사용한 ‘어휘 제약’이라는 술어가 어휘 간의 직접적인 결합 관계를 더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여 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관용어와 연어의 자료는 여러 사전에서 가져 온 것이다. 먼저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2007)’, ‘세종전자사전’의 연어 기초목록 9,027개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살폈다. 중국어의 경우 ‘중국어 관용 사전(2005)’과 중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평가받는 상무인서각의 ‘현대 한어 사전(중-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의 ‘중국어 사전(한-중)’의 용례를 살폈다. 또한 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 일부(7,364,815어절)’, ‘북경대 중국어 말뭉치(CCL Corpus:8억 음절)’를 이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2. 어휘적 연어의 개념과 범위

### 2.1.1 한국: 어휘적 연어의 개념과 범위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연어의 개념은 학자마다 연구의 대상이나 연어의 판별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연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sup>2)</sup> 이는 결국 연어의 개념들 간에 차이뿐 아니라 연어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연어의 개념에는 ‘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된 긴밀한 관계’라는 말이 포함되는데, 구성요소들 간의 긴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어휘적 연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하였던 여러 개념들을 정리하여 ‘계약관계’, ‘선택관계’, ‘공기관계’로 어휘적 연어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적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간의 긴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ㄱ. 계약관계: 어휘적으로 제약되는 결합관계
  - ㄴ. 선택관계: 언어핵이 언어변을 선택하는 관계
  - ㄷ. 공기관계: 특정 어휘소와 공기하는 경향이 큰 관계

자유결합구성을 이루는 어휘들은 통사 범주와 의미 범주에 귀속되며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통해 제한된 통사·의미 범주 내에서 다른 어휘로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 (2) {욕/마음}을 {먹다/\*삼키다/\*빨다/\*토하다}

그러나 (2)처럼 ‘욕, 마음’은 [음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다’와 결합하여 연어구성을 이루며, ‘삼키다, 빨다, 토하다’와 같이 유의어나 반의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2) 먼저 최경봉(1995), 최경숙(1997), 강현화(1998)에서는 체언과 용언의 결합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어를 대상으로 삼는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이며, 어휘적 연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결합관계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을 정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마다 연어의 개념 설정을 위해 달리 설정해 놓은 조건들을 살펴보면, 홍종선·강범모·최호철(2000), 한영균(2002), 서상규(2002)는 연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공기성’이라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희자(1995), 문금현(1996), 이동혁(1998)에서는 ‘구성요소의 의미 전이 여부’를, 최경숙(1997), 임근석(2002)에서는 ‘의미의 투명성’을 중요한 기제로 삼고 있다. 또한 ‘구성 어휘 간의 선택의 문제’를 부각시켜 연어구성을 설명하려 하는 논의에는 최경숙(1997),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6)이 있다.

의 의미자질의 설정을 통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욕, 마음’이라는 어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으며, 어휘적 언어는 선택제약으로는 기술할 수 없는 어휘 간의 결합 제약<sup>3)</sup>을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에서 어휘적 언어에 참여하는 ‘욕, 마음’과 ‘먹다’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을 선택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어휘적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 중에 보다 중심적인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해 다른 것이 선택받는다라는 인식을 통해 언어핵과 언어변<sup>4)</sup>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휘적 언어 연구는 두 어휘가 ‘자주 공기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휘적 언어를 이루는 두 어휘가 공기하여 나타나는 빈도가 높으면 어휘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게 되는데, 이는 어휘적 언어의 긴밀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sup>5)</sup> 다만 특정한 통계적 수치를 공기성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단지 통계적인 추출을 통해 어휘적 언어를 고정된 목록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계적 방법에만 기대어 있는 관점은 통계적 수치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홍종선·강범모·최호철(2000: 110, 125)에서 제시한 ‘밥을 먹다’ (절대빈도 1위), ‘나는 먹다(상대빈도 1위)’와 같이 공기성이 높지만 선택제약으로 설명가능한 자유결합구성까지도 모두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적 언어의 공기관계를 ‘어떤 구성이 언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이 다른 구성보다 언어성이 높거나 낮은 정도<sup>6)</sup>’를 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즉 말뭉치에서 유형빈도가 단 1회 나타나도 구성요소가 제약관계, 선택관계를 보이는 ‘두려움을 먹다’와 같은 신조언어의 경우 또한 언어성은 낮지만 어휘적 언어에 포함된다고 본다.<sup>7)</sup>

이상으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어휘적 언어를 (3)과 같이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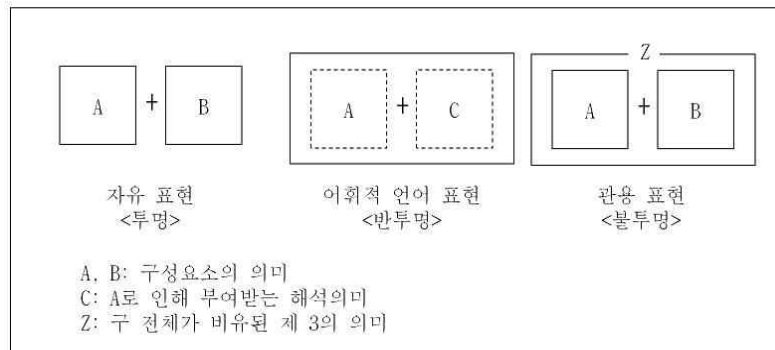
- 
- 3) 어휘적 언어가 보이는 제약관계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상술한다.
  - 4) 언어핵과 언어변이라는 개념은 임흥빈(2002)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박진희(2005), 임근석(2006)에 이어져왔다. 이를 대상어(node)와 언어(collocate)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언어(collocate)’와 ‘언어(collocation)’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핵’과 ‘언어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어휘적 언어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 ‘언어핵의 의미의 투명성’이나 ‘구성요소의 의미 전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언어핵과 언어변의 관계를 어휘적 언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택과 피선택의 관계로만 판단할 뿐이다.
  - 5) 어휘적 언어의 공기성은 언어표현의 절대빈도와 특정 언어핵이 언어변을 선택하는 구성요소의 상대빈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어휘적 언어의 관점에서 절대빈도만을 활용하는 경우 저빈도로 나타나는 실제의 긴밀한 언어구성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상대빈도만을 활용하는 경우 역시 전체 말뭉치 안에서 해당 언어표현의 절대빈도가 낮을 때에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한용균, 2002: 152-153). 본고에서 제시되는 빈도는 공기되어 나타나는 어휘적 언어표현의 절대빈도이다. 이는 ‘유추’ 연구에서 계열체를 이루는 특정 어휘적 언어표현의 유형빈도(절대빈도)가 구성요소의 상대빈도에 비해 어휘적 언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 6) 이러한 ‘정도성’ 혹은 ‘모호성’은 인지언어학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어휘적 언어의 규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단 공기관계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제약관계와 선택관계 또한 언어구성에 따라 어휘제약 정도가 비교적 느슨하거나 구성요소의 선택 양상이 모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철을 밟다, 물구나무를 서다’와 같은 경우는 ‘전철, 물구나무’가 각각 ‘밟다, 서다’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거두다/끌다/던지다/돌리다/떨어뜨리다/모으다...}’에 비해 구성요소의 어휘제약 정도가 강하며, ‘게으름을 {부리다/피우다}, 도망을 치다’ 등은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선택함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나 ‘눈을 {감다/뜨다}, 잠을 자다, 가슴이 아프다’ 등은 선택과 피선택의 관계가 모호하다.
  - 7) 저빈도 용례는 언어가 새롭게 생성되는 형성 기제를 고찰하는 토대가 되어 주므로 생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3) 어휘적 연어의 정의

: 의미 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어휘가 공기하되, 한 어휘가 어휘적으로 제약된 다른 어휘를 선택하는 구 구성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휘적 연어’는 ‘관용어’와 변별되는 상위개념이다. 연어와 관용어의 경계 부분 특유의 애매성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많은 기존 논의에서 이들의 개념정의부터 층위 설정까지 제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관용어와 연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이 본고에서 요구된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관용어는 엄밀히 말하여 ‘구 전체가 제 3의 의미 단위를 이루며 동음어적 대응구(숙어적인 의미가 아닌 일반 구 구성으로서의 의미(literal meaning)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연어는 두 어휘가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단위처럼 사용되지만 각 구성요소의 의미전이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두 어휘 단위로서의 의미적 구별이 가능하다. 이때, 의미적 구별이 가능하다는 말은 구성요소 A의 의미 ‘A’와 구성요소 B의 의미 ‘C’가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며, 연어 내에서 각각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관용어가 구 전체의 비유를 통해 제 3의 의미가 도출되어 하나의 의미적 고정체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림1> 자유결합, 어휘적 연어, 관용어의 투명성 정도

2.1.2. 중국: 어휘적 연어의 개념과 범위

일반적으로는 중국어의 연어(詞語搭配<sup>8)</sup>)가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고정적 연어(固定搭配), 하나는 자유적 연어(自由搭配)이다.

먼저, 고정적 연어는 폐쇄적 연어(封閉類搭配)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유형은 보통 어휘들이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한 정형적(定型的) 전체를 형성하며 어느 정도의 불가분 성질(不可切分性)을 갖는다. 예를 들어 ‘意气風發(원기 왕성하고 기개가 넘람하다)’, ‘文質彬彬(사람이 고상하면서도 예의가 바르다)’, ‘揚眉吐气(억압에서 벗어나 마음이 홀가분한 모습)’, ‘鐵飯碗(쇠 밥그릇, 확실한 직업. 평생 직업)’, ‘大鍋飯(큰 밥솥 안의 밥, 공동 식사, 평균 분배)’

8) 중국의 연어 연구에서 collocation은 주로 "어휘들의 조합 형식, 잘 어울리는 비필(쌍)"을 뜻하는 ‘詞語搭配’로 번역된다.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다시 세분(細分)하거나 그 중간에 다른 성분을 끼어들게 할 수 없다. 현대 중국어에서 이런 고정적 연어의 수량이 아주 많고 성어, 속연, 혈후어, 격언 및 관용어 등 여러 종류가 있다.<sup>9)</sup>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한국어의 어휘적 연어와 가까운 개념은 중국어의 ‘자유적 연어’이다. ‘개방적 연어(開放性搭配)’라고도 불리는 자유적 연어는 중국어의 어휘들이 문법 구조와 의미 관계에 의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된 연어를 말한다.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고정되지 않지만 자주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어 어휘 중에 자유적 연어의 수가 아주 많고 거의 모든 실사(實詞)가 다 기사(基詞)가 될 수 있고 다른 어휘와 결합해서 연어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예로 들어서 각 품사의 연어를 설명하겠다.

먼저 기사가 명사인 연어는 명사 앞에 항상 형용사나 다른 명사가 있어 그것과 결합하여 명사구를 구성하는데 보통 편정사조(偏正詞組: 수식어-중심어 구)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高樓大廈’, ‘高山’, ‘舊社會’, ‘高新技術(첨단기술)’, ‘綠色工程’, ‘方便食品’, ‘國際貿易’ 등이 있다. 다만 이 범주에 속하는 부류들은 단순히 명사 결합 구성인 경우가 많아, 이를 전부 한국어의 어휘적 연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기사가 동사인 연어는 부사, 명사와 결합하여 동사구(動詞詞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積極工作(적극적으로 일하다)’, ‘反復琢磨(곱새기다, 반복해서 생각하다)’, ‘實現現代化(현대화를 실현하다)’ 등이다. 일부 동사는 결합 능력이 강하고 하나의 동사가 많은 명사, 형용사 등과 결합하여 술목이나 동보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打’자가 구성할 수 있는 연어가 많은데 ‘打靶((표적을 조준하여) 사격하다), 打包(포장하다. 싸다,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다), 打抱不平(불공평한 일을 보고 의연히 나서서 약자의 편을 들다), 打比方(비유하여 말하다), 打岔((남의 일이나 말을) 방해하다. 끊다. 막다), 打成一片((주로 생각·감정이) 하나가 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한데 뭉치다, 주로 인간관계를 말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가 형용사인 연어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아 형용사구(形容詞短語)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白花花(눈부시게 하얗

9) - 성어: 중국어 중에 정형성(定型性)과 문어적 특성이 가장 강한 고정적 연어이다. 성어는 그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수의적으로 바꿀 수 없고 어휘의 순서도 뒤바뀌면 안 된다. 성어는 대부분 신화 전설, 유언 등에서 비롯되며, 일부는 민중들의 구어를 기록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여 점점 굳어진 것이다.

- 속연(諺語): 속연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문장인데 이해하기 쉬워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내용이 모두 사람들의 사회 실천 중에서 겪은 경험이어서 어떤 도리와 규칙을 반영한다.

예) “疾風知勁草(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다)”, “一寸光陰一寸金(시간은 금이다)”

- 혈후어(歇後語): 중국어에서 구조 혹은 조합 방식이 아주 특이한 고정적 문장들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혈후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어면(語面)인데 수수께끼의 문제와 비슷하고 뒷부분은 어저(語底)인데 수수께끼의 답과 비슷하다. 예) “啞巴吃黃蓮——有苦難言(병어리가 갱쟁이풀을 먹다-쓰다고 말할 수 없다)”, “黃鼠狼給雞拜年——沒安好心(족제비가 닭에게 세배를 하다-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 격언(格言): 격언은 중국어에서 내용이 정묘하고 사람들을 경계하여 깨우치게 하는 말이다. 철학적인 성질도 강하다. 또 어휘의 조합이 고정적이고 구조와 음운적으로도 독특하다. 예) “千里之堤, 潰于蚊穴(천리의 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 하찮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 “謀事在人, 成事在天(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

- 관용어(慣用語): 관용어는 성어와 달리 대부분 네 글자가 아니라 글자 수는 부정적이고 구어적인 특성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더 생동적이다. 관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그 표면적인 의미의 비유적인 의미이다. 예) “炒魷魚(오징어를 볶다, 면직(해고) 당하다)”, “敲竹杠(대나무 뿔대를 두드리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뜯어내다.)”, “吹牛皮(허풍을 떨다. 큰소리치다)”, “戴高帽(높은 모자를 쓰게 하다, 비행기를 태우다)

다), 白茫茫((구름이나 안개 등이) 온통 끝없이 새하얀 모양), 蒼白(창백하다), 黑壓壓((사람이나 물건 등이 많이 밀집된 것을 나타내어) 새까맣다), 黑黝黝(어두컴컴하다), 漆黑(칠흑같이 어둡다. 캄캄하다. 매우 까맣다), 紅彤彤(새빨갳다. 시뻘겑다), 金燦燦(금빛 찬란하다)' 등이다.

기사가 동사, 형용사인 중국어 연어는 한국어의 연어와 유사점이 많은데, 이들은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주 공기하며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된다. 기사가 동사인 중국어 연어는 한국어의 '명사+동사'형 연어에, 기사가 형용사인 중국어 연어는 한국어의 '부사(의성·의태어)+동사'형 연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연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성에는 '이합어'가 있다. 그중 특히 '이합동사'는 1음절 동사형 단어와 1음절 명사형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동사로 활용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사형 단어 '点(점화하다)'과 명사형 단어 '火(불)'이 합쳐져 '点火(불을 붙이다)'라는 동사로 활용 되는 형태이다.

- (4) ㄱ. 見 + 面 = 見面
- ㄴ. 請 + 客 = 請客
- ㄷ. 結 + 婚 = 結婚

이합동사는 동사와 명사 사이에 '양사, 동태조사, 보어'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합동사는 명사 부분 자체가 목적어이므로 다른 목적어가 위치하면 목적어가 중복된다. 때문에 이합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위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이합동사의 특징은 한국어의 '명사+동사'형 어휘적 연어와 조응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관련 연어의 개념화 양상

인간의 감정에서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이 '화'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어떻게 개념화되었을까? 본고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화' 관련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한국어 명사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의 의미로 이와 유사한 의미의 명사는 다음과 같다. (1-2)는 세부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화'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는 명사로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 (1) 나윤희(2008)
  - 성, 분, 골, 울분, 분통, 분노, 부아, 역정, 열화, 의분, 울화, 울화통
- (2) 임지룡(2000)
  - ㄱ. 골
  - ㄴ. 노기, 노여움/노염, 노힘, 격노, 진노

- ㄷ. 부아, 부아통
- ㄹ. 분, 분개, 분격, 분기, 분기등등, 분기등친, 분기충진, 분기탱친, 분김, 분풀이, 격분, 비분, 비분강개, 울분, 의분, 통분
- ㄱ. 분노, 분노경련, 분노함
- ㄴ. 성
- ㄷ. 약
- ㅇ. 역정, 역정풀이
- ㅈ. 짜증
- ㅊ. 화, 화기, 화딱지, 화풀이, 화김, 화병, 화증, 화증머리, 울화, 울화증, 울화통, 울화병, 심화, 심화풀이, 심화병

- (3) ㄱ. 골 : 비위에 거슬리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떡 내는 **화**.
- ㄴ. 노여움: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감정.
  - ㄷ. 부아: **노엽**거나 **분**한 마음
  - ㄹ. 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 ㄱ. 분노: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
  - ㄴ. 성: **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 ㄷ. 약: **비위**가 몹시 상할 때 일어나는 감정
  - ㅇ. 역정: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
  - ㅈ. 짜증: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각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
  - ㅊ. 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

(1)은 나윤희(2008), (2)는 임지룡(2000)에 제시된 ‘화’ 관련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목록이다. 임지룡(2000)에서는 (2)에서 중심이 되는 표제어를 뽑아 (3)으로 정리하고 각 어휘의 사전상의 뜻풀이(『표준국어대사전』)를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화’와 관련된 어휘 목록의 사전적 뜻풀이는 유의반복의 순환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2ㄹ)의 ‘분기등등, 분기등친, 분기탱친, 비분강개’는 구 단위의 의미 덩어리가 성어화된 어휘이며, (2ㄱ)의 ‘분노함’은 동사에 명사 파생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으로 실제 언어에서 명사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을 ‘화’의 개념화로 보기 어렵다. (2ㄷ) ‘분풀이’, (2ㅇ) ‘역정풀이’, (2ㅊ)의 ‘화풀이, 심화풀이’는 ‘{분/역정/화/심화}를 풀다’라는 언어표현이 명사화된 형태로 ‘화’ 자체이기 보다 그 속에 구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ㄹ) ‘분김’과 (2ㅊ)의 ‘화김’ 역시 ‘{분/화}가 난 김에’의 줄임 표현으로 조사 ‘에’와 제한적으로 결합하며 ‘화’보다도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과 (2)를 함께 정리하되, 이 같은 예들을 제외하여 한국어에서 ‘화’가 개념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 목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세종전자사전(언어사전)과, 한국어언어사전에 나온 언어 결합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보다 자세한 용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1> 한국어 ‘화’관련 언어 결합 정보<sup>10)</sup>

10) 세종전자사전(언어사전), 한국어언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화	나다, 치밀다, 치솟다, 내다, 풀다, 터뜨리다, 돋우다, 삭이다, 동하다, 뜨다, 나다, 꿰이다, 폼다, 머금다
분노	치밀다, 치솟다, 들끓다, 사다, 가라앉히다, 차다, 사라지다, 쌓이다, 어리다, 누르다, 접다, 찰다, 풀다, 솟구치다 폭발하다, 가라앉다, 끓어오르다, 삭이다, 자아내다, 충만하다, 터지다
노여움	풀리다, 타다, 풀다, 가라앉히다, 억누르다, 차다, 사다, 치솟다, 찰다, 띠다
노기	풀다, 등등하다, 띠다, 어리다, 폼다, 드러내다, 터뜨리다
울분	끓어오르다, 폭발하다, 터뜨리다, 토하다, 삭이다, 달래다, 이기다, 차다, 찰다, 치밀다, 풀다
역정	솟다, 내다, 나다, 부리다, 사다, 솟다
울화	나다, 들끓다, 북받치다, 터지다, 치밀다, 가라앉히다, 삭이다, 끓어오르다
울화통	터지다, 터뜨리다
분	풀리다, 풀다, 누르다, 삭이다, 삭다, 이기다, 찰다, 가라앉다
부아	치밀다, 돋우다, 나다, 내다, 꿰다
분통	터지다, 터뜨리다, 삭이다, 치밀다
열	받다, 올리다
열화	나다, 치밀다
열불	나다, 치밀다, 오르다
열통	터지다
성	나다, 내다, 치밀다
화병	나다, 들다
화증	나다 내다

추상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물로 이해하기도 하고, 신체 내부 및 외부의 생리적 반응을 통해 개념화하기도 한다. 전자는 은유적 개념화이고 후자는 환유적 개념화이다.<sup>11)</sup>

임지룡(2006: 70-80)에서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진술하였다. 여기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연어나 관용어 뿐 아니라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유 표현들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화'의 은유는 '그릇 속의 액체'와 '적(敵)', '물건', '식물', '불'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1) 가령 한국어에서 목에 핏대를 세운다는 표현은 화가 났을 때 목과 머리에 피가 몰라는 신체적 증세를 통해 화가 났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밖에 '눈이 곤두서다, 피가 거꾸로 솟다, 입에 거품을 물다' 등과 같은 표현들도 모두 환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때의 환유는 '화'의 결과에 해당하는 신체 내부, 외부적 변화나 증세를 통해 '원인'인 화를 가리키고 있다. 임지룡(2006:80)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화'의 환유적 양상을 나타내는 신체 외부적 증상을 나타내는 언어표현으로 11개 부위의 75가지나 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축자적인 의미와 제3의 의미를 둘 다 지닌다고 판단해 '관용어'의 범주에 넣고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즉, 화는 물처럼 고이거나 차오르기도 하고, 뜨거운 물처럼 부글거리고 치솟아 오르기도 하는 표현으로 드러난다. 또 '적'을 싸워 누르듯이 화를 참는 것은 누르는 것이며, 화를 이기기도 하고 또 사로잡히는 양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가 발생하는 것은 식물처럼 움트거나 돌아나는 것이며, 화의 정도가 강한 것은 뿌리가 깊은 것이다. 또 한국어에서 화는 '불'로 표현되는데 '열화, 천불, 열불' 등과 같은 언어표현들은 모두 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임지룡(2006: 70-80)의 기술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하는 언어 목록을 은유화된 양상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1. [화는 그릇 속의 액체 또는 기체]

이 경우 화는 그릇 속의 액체가 고이고, 열을 받아 들끓고 치솟으며 폭발하며 가라앉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적 은유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의 시나리오와 동일한 영상도식을 갖는다.

#### (4) 화의 시나리오(임지룡 (2006: 22))

- ㄱ. 1단계(원인) : 가해자가 자아를 화나게 한다,  
화나게 하는 사건이 자아를 불쾌하게 한다.
- ㄴ. 2단계(감정) : 화가 존재한다.  
자아는 생리적, 행동적 효과를 체험한다.
- ㄷ. 3단계(통제시도) : 자아는 화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저항력을 발휘한다.
- ㄹ. 4단계(통제소실) : 화의 강렬함이 한계를 초월한다.  
화는 자아의 통제력을 소실한다.
- ㅁ. 5단계(행동): 자아는 가해자에게 대한 보복 행위를 수반한다.

[화는 그릇 속의 액체] 은유는 화의 원인인 (4ㄱ)과 행위로 나타나는 (4ㅁ)외에 나머지 (4ㄴ-ㄹ)은 화의 각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 (5) ㄱ. {분노/노기}가 어리다, {분노/노여움/울분}이/가 차다
- ㄴ. 화를 끓이다, {화/부아}가 끓다, {분노/울화}가 들끓다, {분노/울분/울화}이/가 끓어오르다, 역정이 솟다 {화/분노/노여움}이/가 치솟다, 분노가 솟구치다, {분노/울분/울화/부아/열화/열불/성}이/가 치밀다
- ㄷ. {분노/울화}/ 가라앉히다 분이 가라앉다
- ㄹ. {화/노기/울분/울화통/분통}을/를 터뜨리다, {분노/울화통/분통/열통}이/가 터지다, {분노/울분}이/가 폭발하다

(5ㄱ)은 화를 지각하는 단계이며, (5ㄴ)은 화가 점점 증폭되는 단계의 언어표현들이다. 이러한 화는 (5ㄷ)에서처럼 통제가 시도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5ㄹ)에서처럼 통제 불능이 되어 마구 발산되기도 한다.

특히 (5ㄹ)의 '{울화통/분통/열통}을 {터뜨리다/터지다}'은 액체로 은유된 화가 끓어올라

기체가 되어 분출하는 단계에서 쓰이는 연어구성인데, 여기서 ‘울화통, 분통, 열통’은 우리의 몸이 ‘화’를 담고 있는 ‘그릇(통)’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보인다.

### 3.1.2. [화는 음식물]

(6) 화를 머금다, {화/분노/울분/울화/분/분통}을/를 삭이다, 울분을 토하다

한편 ‘화’는 음식물로 은유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6)의 예문을 보면 화는 입 안에 머금을 수 있는 음식물이 되며, 체내에 음식물을 삭이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화가 누그러질 수 있다. 또한 ‘울분을 토하다’는 화를 분출한다는 뜻을 음식물을 토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임지룡(2006)에서는 말뭉치 검색을 통해 ‘성을 머금다, 화를 꼭 눌러 씹다’ 등의 표현도 함께 들고 있다.

### 3.1.3. [화는 적], [화는 물건]

(7) {분노/분}을/를 누르다, 노여움을 억누르다, {울분/분}을 이기다, 노기를 드러내다

(8) {분노/노여움/역정}을/를 사다, 분노가 사라지다, 분노가 쌓이다, 열을 받다

또한 ‘화’는 (7)처럼 ‘누르거나 억누르거나 이길 수 있는 적’으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8)처럼 ‘쌓거나 사거나 올리거나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열을 받다’의 경우는 ‘화’가 먼저 열로 은유된 다음 다시, 물건으로 재은유되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 3.1.4. [화는 불], [화는 열]

(9) 열화가 {나다/타다}

(10) 열을 받다, 열불이 오르다

‘화’가 [그릇 속의 액체]였다면 또 ‘화’는 [화덕 속의 불]이기도 하다. 우리의 몸이 화덕이 되며, 그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불처럼 타오르며 그 온도가 뜨거워 열이 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 3.1.5 [화는 병], [화는 병의 증세]

(11) {화병/울화병}이 {나다/들다}

(12) {화증/울화증}을 내다, {화증/울화증}이 나다

(11)은 ‘화’가 ‘병’으로 은유되고 있는 예문이다. ‘화증’과 ‘울화증’은 동일한 문맥에서 자유롭게 대치되어 쓰일 수 있으나 ‘화증’이 그 사용빈도가 더 높다. (12)는 ‘화’가 ‘병 때문에 얻

은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 예이다.

### 3.1.6. 기타

- (13) [식물] 부아를 돋우다
- (14) [실/끈] 풀다, 풀리다, 자아내다
- (15) [아이] 노기를 폼다, 울분을 달래다
- (16) [종이] 분노를 접다
- (17) [기세] 노기가 등등하다

또한 ‘화’는 위의 (13~17)에서와 같이 ‘식물, 실/끈, 아이, 종이, 기세 등’ 다양한 은유로 개념화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한국어의 ‘화’는 중국어의 ‘화’에 비해 다양한 개념으로 은유화되어 사용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2> 중국어 ‘화’관련 연어 결합 정보<sup>12)</sup>

火	動(움직이다), 光(드러내다), 來(오다), 窩(쌓이다), 發(펴다), 冒(내뿜다), 挂(걸다), 壓(누르다), 往上竄(치솟다)
火氣	盛(번성하다), 大(크다)
怒	動(움직이다), 發(펴다), 息(쉬다), 忍(참다), 激(격동되다)
怒火/怒氣	生(내다), 按捺(누르다), 涌上(용솟음치다), 爆發(폭발하다), 抑制(억누르다), 壓抑(억압하다) .숨(머금다), 忍(참다), 觸發(촉발하다), 壓(누르다), 点燃(점화하다), 激(격동되다)
憤怒	感到(느끼다)
氣	動(움직이다), 樞(화나다), 窩(쌓이다), 消(사라지다), 淘(일다), 壓(누르다), 有(있다), 生(내다), 惹(야기하다), 泄(새다, 쏟다), 挂(걸다), 忍(참다)
性	犯(범하다)
憤	숨(머금다), 泄(새다, 쏟다), 激(격정되다)
熱	發(펴다)
郁憤	強壓(강하게 억누르다), 發泄(쏟아내다), 發(펴다), 泄(새다, 쏟다), 強忍(억지로 참다), 感到(느끼다)
郁火	迸發(내뿜다), 上升(상승하다)
私憤	發泄(쏟아내다), 泄(새다, 쏟다)

12) 현대한어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중사전 참고.

義憤	感到(느끼다)
熱火	強壓(강하게 억누르다)

중국어의 ‘화’가 은유로 개념화하는 경우를 보면, 중국어에서 ‘화’는 ‘뜨거운 기체’로 표현되는 예들이 많다. ‘생기, 노기, 화기’ 등과 같은 어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활 표현하는 개념적 은유에서 ‘뜨거운 기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은유적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구를 진행한 黃祖江(2002)에 의하면, 중국어에서 화를 나타내는 개념적 은유 중에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뜨거운 김’이며 전체 화를 표현하는 개념적 은유의 50%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그밖에 화는 ‘發火, 惱火, 怒火’ 등에서 보듯이 ‘불’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또 천둥, 지진, 날씨’ 등과 같은 자연력에 비유되기도 하며, ‘뜨거운 김, 자연력, 위험한 동물’로 보기도 한다. 袁紅梅, 楊春江(2008)의 조사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를 용기속의 ‘뜨거운 김’으로 개념화하는 예가 57.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화를 ‘불’로 개념화하는 예가 19.21%, ‘신체반응’이 18.54%, ‘자연력’ 3.09%, ‘위험한 동물’ 1.32%순이다. 여기서도 신체반응을 통해 화를 표현한 것은 개념적 환유에 해당된다.

본고에서 추출한 중국어의 ‘화’ 관련 어휘적 연어의 은유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 [화는 뜨거운 기체]

중국어에서 ‘화’는 ‘뜨거운 기체’로 은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화나다’라는 표현에 ‘氣’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氣, 火氣, 怒氣’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들이 각각의 언어 구성에서 다시 다양한 개념으로 은유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火氣’는 ‘大’와 연어를 이루며 다시 물건으로 은유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뜨거운 기체] 은유는 주로 ‘發(내뿜다), 上升(상승하다) 生(내다), 冒(내뿜다), 爆發(폭발하다) 등’의 동사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18)은 ‘氣’가 ‘화’의 의미로 사용된 언어구성을 CCL에서 검색한 것이다.

- (18) ㄱ. 挨了剋, 心理窩氣。  
 ㄴ. 我从来没有看见他动过氣。  
 ㄷ. 有话好好说, 用不着斗氣。

### 3.2.2. [화는 불]

중국어에서 ‘화’는 뜨거운 기체만큼이나 ‘불’로 은유가 많이 되는데 ‘火, 怒火, 郁火, 熱火’ 등과 같다. (19ㄱ)의 ‘点燃怒氣’처럼 ‘怒氣’가 ‘점화하다’의 동사 ‘点燃’와 함께 쓰여 불로 은유되기도 한다.

- (19) ㄱ. 我感到心中的怒火点燃了!  
 ㄴ. 有话好好说, 不要发火。  
 ㄷ. 他气得直冒火。

### 3.2.3. [화는 액체 또는 그릇 속의 액체]

위의 ‘뜨거운 기체, 불’ 은유가 화가 직접 개념화된 것이라면 ‘그릇 속의 액체’ 은유는 함께 결합하는 동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어의 ‘화’ 은유에서와 매우 유사하다. 이를테면 ‘涌上(용솨음치다), 上升(상승하다) 生(내다), 泄(새다, 쏟다), 淘(일다) 消(사라지다) 发泄(쏟아내다), 嘘(머금다) 등’ 과 함께 사용되어 액체로 은유되며 특히 ‘嘘(머금다), 泄(새다, 쏟다), 发泄(쏟아내다)’와 같은 동사를 통해 이들이 그릇 속의 액체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ㄱ. 謝雪萍一想, “這不是要調查周總理嗎?”一股怒火涌上她的心頭。  
 ㄴ. 如果絕對沒有泄恨的契機, 他們便會鋌而走險, 以報復現實來平衡傾斜的心理。  
 ㄷ. 你去賠个不是, 讓她消消氣。  
 ㄹ. 丁氏猛然抬起頭來, 含怒說道: “徐先生, 你說話太无禮貌。”

### 3.2.4. 기타

중국어의 ‘화’ 언어표현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은유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적] 은유와 [물건] 은유이다. 중국 내에서는 [화는 적]은유를 보통 [화는 위험한 동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적’과 ‘위험한 동물’이 갖는 유사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火와 氣’는 (21)처럼 ‘窩(쌓이다), 挂(걸다), 有(있다)’ 등과 결합하여 물건으로 은유될 수 있고, 역시 ‘火’와 ‘怒’는 (22)에서와 같이 ‘來(오다), 動,(움직이다), 息(쉬다)’와 결합하여 [생명체]로 은유할 수 있다. (23처럼 ‘犯(범하다), 抑制(억누르다), 壓抑(억압하다), 強壓(강하게 억누르다)’ 와 함께 구성하여 사용되는 연어는 적으로 은유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위의 생명체 은유와 합하여 위험한 동물로 은유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 (21) 他話沒說完, 但又頓了半天, 看得出來, 他心里有氣。  
 (22) ㄱ. 他一听這話就來了火。  
     ㄴ. 請息怒, 有事好商量。  
 (23) 說几句好話給他壓壓氣兒。

이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화’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은유적 개념화 양상과 관련하여 두 언어에 유사한 근원영역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언어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는 ‘용기속의 뜨거운 기체, 액체, 불’ 같은 은유는 개념화 사이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어 동일한 근원영역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식물, 끈, 실, 아이, 종이’ 등의 은유는 중국어에서 그리 흔치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에서 화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국어는 대표적인 몇 가지로 비교적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와 동의관계에 있는 위의 명사들도 의미는 유사하나 명사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하위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성’이 있는 명사로 ‘화, 부아, 역정’을 한 부류로 ‘상태’에 더 가까운 ‘분노, 노여움, 부아, 울분’을 다른 부류로 볼 수 있다.

세종전자사전(2004)의 의미부류에 따르면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심리상태’와 ‘심리행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둘 모두 대부분 ‘사태’에 속하지만, ‘심리상태’는 ‘정적상태’의 하위부류로서 긍정적 심리상태인 ‘감동, 만족, 우정, 환희, 희망 등’과 부정적 심리상태인 ‘분, 울분, 공포, 겁, 두려움, 슬픔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반면 ‘심리행위’는 ‘행위’의 하위부류로서 외향적 심리행위인 ‘화, 애교, 관용, 노발대발, 자비 등’과 내재적 심리행위인 ‘절망, 낙담, 실망, 좌절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결합이 되는 동사의 분포에 의해서 구별되는데, ‘상태’에 속하는 감정명사들은 ‘느끼다/품다/가지다’ 등의 결합이 더 자연스러운 반면, ‘행위’에 속하는 감정명사들은 ‘하다/부리다/떨다/내다’와의 결합이 더 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경우 ‘憤怒, 怒氣, 怒火, 憤氣, 氣分’의 경우 형용사로 해석되기도 할 만큼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느끼다/있다’ 동사와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 4.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 관련 연어의 어휘함수

이 장에서는 벨축의 어휘함수를 기반으로 각각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의 통사·의미적 관계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의미텍스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어휘함수를 고안해 낸 벨축은 각 언어의 어휘함수를 바탕에 둔 설명결합사전이 만들어진다면, 언어학의 대응만으로 언어변은 자동적으로 선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어 ‘화’ 관련 연어의 경우 <표3>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어 연어에 대응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에서 동일한 어휘함수로 대응되는 경우들과 상이한 어휘함수로 대응되는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치와 불일치 예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한-중 언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3> 한국어와 중국어 ‘화’ 관련 연어의 어휘함수<sup>13)</sup>

	한국어 연어	어휘함수	중국어 연어
Incep <sup>14)</sup>	{화/역정/열불}이 나다 {화/역정}을 내다 화증을 내다 화증이 나다	Func-Oper	窩+ {火/氣}, {火/氣}+ 窩
	역정을 부리다	Oper <sup>15)</sup>	动+ {火/怒/氣},

13) <표3>에서 중국어 연어의 경우에 술목구조(Oper)가 대부분이고 주술구조(Func)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연구대상에 이합동사들이 많이 포함된 결과로, 이합동사들이 술목구조가 묶여 하나의 동사가 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冒+ 火, 光+ 火 发+ {怒/火/郁愤}, 挂+ 火 <sup>16</sup> ), 來+ 火 生+ {怒火/怒气/氣} 點火+ {怒火/怒气}
	{울화/열화}가 나다 화병이 {나다/들다} 분노가 차다 분노에 차다	<b>Func<sup>17</sup></b>  <b>Labor<sup>18</sup></b>	
<b>Cont<sup>19</sup></b>	화를 {품다/머금다} 노기를 띠다	<b>Oper</b>	含(+ 着)+ {怒火/怒气/憤} 感到+ {憤怒/郁愤/義憤} 愾+ 氣 有+ 氣
<b>Plus<sup>20</sup></b>		<b>Func-Oper</b>	火+ 往上窜, 往上窜+ 火 {怒火/怒气}+ 涌 涌+ {怒火/怒气}
	{화/분노/울화/부아}가 {치밀다/치솟다} 열불이 오르다 분노가 솟구치다 {분노/울분}이 끓어오르다	<b>Func</b>	郁火+ 上升,
<b>Minus<sup>21</sup></b>	노여움을 억누르다 울분을 달래다 분을 누르다 분노를 참다 {화/분노/노여움}을 가라앉히다 울분을 삭이다 화를 접다	<b>Oper</b>	捺+ 火 忍+ 火/氣 忍+ (+ 着)+ {怒火/怒氣} 强忍+ 郁愤 压+ 氣 压抑+ {怒火/怒氣} 抑制+ {怒火/怒氣} 壓(+ 着)+ {火/怒火/怒氣} 泄+ {氣/憤} 强压住+ {郁愤/熱火}
<b>Magn<sup>22</sup></b>	울분이 폭발하다 {울화/울화통/열통}이 터지다 분노가 {들끓다/폭발하다/터지다}	<b>Func</b>	
	{노기/울화통/분통}을 터뜨리다	<b>Oper</b>	发泄+ {郁愤/私憤}
		<b>Func-Oper</b>	迸發+ 郁愤, 郁火+ 迸發 {怒火 / 怒气}+ 爆发, 爆发+ {怒火 / 怒气}
<b>Liqu<sup>23</sup></b>	{화/노여움/울분/울화/분}을 풀	<b>Oper</b>	息+ 怒

	다		消+气
	{화/분노/노여움}이 가라앉다	Func	
Caus <sup>24)</sup> Incep	분노를 자아내다 화를 부르다	Oper	觸發+ {怒火/怒氣} 惹+氣
Caus Plus	부아를 돋우다	Oper	激+ {怒/憤/怒火/怒氣}
Caus Liqu	{화/노여움/울분/울화/분}이 풀리다	Func	

## 5. 결론

이제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 관련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언어에서 ‘화가 어떻게 개념화되고 은유되는지 살펴보았고 이어서 이들의 의미와 통사구조를 고려하여 어휘결합사전을 구상해 보았다.

한국어의 ‘화’ 감정은 ‘그릇속의 액체, 기체, 음식물, 적, 물건, 불, 열, 병, 증세, 식물, 실/끈, 아이, 종이, 기세 등 매우 다양한 대상으로 은유되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중국어 ‘화’ 감정은 기체, 불, 그릇속의 액체, 적, 물건, 생명체 등 보다 한정적인 대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의 대응관계의 한 예로 ‘화’를 기반으로 한 언어를 살펴 보았는데, 한국어 ‘화, 분노’ 등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는 형용사보다는 동사 연어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중국어의 ‘火, 怒, 氣’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동사 연어와 많은 대응관계를 보인다. 즉 어휘함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화’에 대해 명사의 발현 시점인지 종결 시점인지, 표출인지 억제인지, 감정 강도가 점점 커지는지 적어지는지, 또 외부 논항이 화를 돋우는지 막아주는지 등의 다양한 언어변의 의미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연어의 대응관계를 좀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14) 사태의 시작(기동상) 예) IncepOper(이야기,말)=붙이다
  - 15)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목적어(또는 제1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는 기능동사  
예) Oper(결론)=내리다, Oper(도망)=하다,치다,가다,오다,다니다
  - 16) [방언] 화내다, 성내다, 노하다의 뜻
  - 17)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주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예) Func(결론)=나다, Func(침묵)=흐르다
  - 18)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제2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고 i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예)Labor(고려,계산)=넣다, Labor(엄두,기억)=두다
  - 19) 사태의 지속(지속상) 예)ContOper(침묵)=지키다
  - 20) 더한 정도로 예) IncepPredPlus(가격)=치솟다
  - 21) 덜한 정도로 예) IncepPredMinus(기온)=급강하하다
  - 22) 높은 정도로, 높은 정도의
  - 23) 사태가 중지되도록 함. 예)Liqu(부패,부정)=척결하다
  - 24) 사동사, 사태의 발생을 야기함



## 6. 참고자료

- 강현화(2005), “한국어학습을 위한 프레지올러지에 관한 연구 (2) -한중 대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6-1: 1-21
- (1998),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김진해(2000), 『연어 연구』, 한국문화사.
- (2000), “연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 (2007), “연어관계의 제자리 찾기 : 국내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 김혜원(2006), “중국어 비유표현에 나타난 문화 특징,” 『수사학』 4, 한국수사학회.
- 나윤희(2008), “한국어 ‘화’와 프랑스어 ‘colere’ 연어 대조,” 『프랑스어문교육』 28
- (2007), “한-프랑스어 연어 대조에서 어휘함수의 활용,” 『프랑스문화연구』 14
- 박진희(2005), “연어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연구회.
- 유승만(2006), “연어구성 어휘의 의미투명성의 문제,” 『다국어 연어 대조 연구』(학진 기초학문 육성지원과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다국어연어대조연구팀 중간발표회 발표집).
- 이동혁(1998), “국어의 언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2004), “국어 연어관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이병근·박진호(2000), “결합설명 사건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 43 43.
- 이선희(2009), “한중문학작품 번역 속의 ‘화(憤怒)’의 개념화 양상-개념적 은유, 환유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어문학』 54.
- 이희자(1995) “현대국어 관용구의 결합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임근석(2002), “현대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임유종(2005), “연어의 개념과 범위한정의 제 문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02), “기본 감정 표현의 은유화 양상 연구,” 『한국어학』 17.
- (2006), “의미 구조의 비대칭성,” 『이병근선생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 (2006),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 임홍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 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국어학회.
- 조은영(2010), “어휘적 연어의 형성과 유추,”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 홍재성 외(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홍재성·박동호(2000), “멜축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 연구”, 인문논총 43,
- 홍중선·강범모·최호철(2000), “한국어 연어 정보의 분석·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 (2002), “‘한국어 정보 처리와 연어 정보’에 대한 토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연어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39, 국어학회.
- 최순희(2005), “한-중 연어 비교 연구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이고르 멜추크, “설명결합사전에서의 어휘정의”, 『새국어생활』 2-4,
- 劉汝山(2001), “漢語詞語搭配類型及其在 <漢英搭配詞典> 中的收錄問題”, 『青島海洋大學學報』 第4期.
- 婁捷(2006), “從‘火’的意義演變看隱喻認知”, 『現代語文』 7月号.
- 袁紅梅·楊春紅(2008), “英漢語中‘憤怒’隱喻的認知對比與文化闡釋”, 『北京第2外國語學院學報』 第2期
- 黃祖江(2002), “談漢語表示‘憤怒’的概念隱喻”,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